

권두언

유 양 속 · 보나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협 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여름은 무엇인가를
의욕적으로 할 수 없을 정도
로 참으로 무더웠습니다. 저
는 시원한 실내에서 일하면서도
찌증스러워 하다가 선풍기조차 없이 견디고 있다는
어느 보육시설의 아이들과 몸을 추스르기도 힘든
노인들이 많다는 것을 전해 듣고 불평을 멈추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름 휴가차 경상북도에 있는 작은 마을에
와 있습니다.

포장 도로가 끝나고 계곡 물을 여섯 번 건너와
더 이상 길이 없는 곳 작은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한낮에 무서운 기세로 내리쬐는 햇빛, 소
나무가 빼곡히 들어찬 산과, 산 사이에 들어선 하
늘, 질푸른 나무들과 숲 사이 없이 흘러가는 계곡
물에 반짝이는 햇빛,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리는 이
름 모를 풀꽃들과 한데 어우러지는 벌레들의 울음
소리가 있습니다. 또한 비가 많이 내리면 외지와 고
립이 되는 곳이며, 저녁이면 수없이 많은 별들이 감
탄을 자아내는 곳이며, 세상사의 시끄러운 소음과
사람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복잡함이 없는 곳입니
다. 해거름에는 낮 동안 따스하게 데워진 바위에 앉
아서 계곡 물에 발을 담그고 서서히 고운 빛으로 물
들어가는 노을을 바라봅니다. 이때는 수많은 잠자
리들이 계곡 물 위를 날아다니고, 낮 동안 거칠게
달아올랐던 공기가 서서히 식으면서 계곡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어두움이 계곡을 덮으
면 가로등 불빛으로 놀라우리만큼 많은 벌레들이
모여 들어 춤을 춥니다. 저는 그 희한한 광경을 바
라보면서 죽음을 무릅쓰며 불빛을 향하여 뛰어드는
벌레들의 속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벌레들의
한살이에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며, 의미 없
게 생각되는 시간을 살다가는 벌레들이지만 그들의
삶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겠지요. 벌들이 촘촘히
박힌 하늘을 올려다보니, 광활한 우주가 온통 신비
로 다가오면서 하느님의 모상이며 이 우주와도 같
이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작은 벌레
만큼, 바닷가의 모래 한 알만큼이나 한없이 작게만
느껴졌습니다. 벌레들이 저의 생각을 모르듯 우리
도 하느님의 섭리를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그토록 마음
에 두었던 일들과 갈등들도 아무 것도 아닌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매일처럼 영원할 것 같은 지금의 이 순
간은 많은 사람들이 산이나 바다와 같은 자연 속에
서 지친 심신을 달래며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있
는 시간이며,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을 하는 시간이기
도 하며, 사랑을 나누며 기쁨에 충만한 시간이기도
하고, 이 세상에 살다가는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시간이기도 하며, 수고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
는 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
고 태어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삶의 끝자
락을 부여잡고 고통 받고 있는 누군가의 안타까운
시간이기도 하고, 살아있음이 고통인 누군가의 시

간이기도 하며, 누군가에게는 잘 살지 못한 삶 때문에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기도 할 것이며, 헤어짐의 고통에 몸부림치는 비통한 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매 순간을 깨어 준비하면서 신앙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처녀처럼 살지는 못할지언정 돌아오지 못할 일회성의 길을 생각없이 급하게 가고 있다는 사실이 때때로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표정없는 도시에서 일 중심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기계적으로 생각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무디어진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지나온 많은 시간들은 무엇인가를 처리하는 시간이었고, 함께 했던 사람들과도 마음으로 보다는 일 중심의 메마른 만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휴가동안 바쁜 일상을 접고 반 넘어온 올해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잘 살고 있는지,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발밑을 살피고 보다 소중한 것을 잃지 않고자 합니다. 그러나 조용히 머무르는 연습이 덜 되어서인지 아무 것도 하지않고 있다는 것에, 돌아갈 때 처리해야 할 일이 밀려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때로는 조바심이 나고 불안해 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읽었던 도메니코 까쎄라 지음, 이동익 옮김의 <아픈 이들에게 도움을>이라는 책에 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은 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과 만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환자와 함께 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다시 생각해도 좋을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환자를 돌보는 삶 속에서 예수의 정신을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은 하느님의 은총인 동시에 우리의 의무라고 하고 있습니다.

1.

말기환자를 대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이미 명철하고 용감하게 받아들인 상황에 대하여 부정하지 말고 환자가 현재 표현하는 감정에 머무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언어나 질문에 숨겨진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은 환자와 투명함과 진실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2.

우리는 환자들이 극적이거나 우리와 전혀 상반된 감정을 표현할 때에도 그들에게 대화의 주도권을 주어야 합니다. 환자들과 만날 때 의미가 없는 말, 그저 평범한 말, 판에 박힌 말을 하게 되면 환자들은 수확을 거두기 어렵고, 돌보는 이는 심리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힘 없는 여러 말보다 침묵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담아 환자의 손을 잡아주거나 이마에 손을 얹는 일이 더 적절하다고 합니다.

3.

다루기 힘든 환자들을 대할 때, 돌보는 이들은 인간적인 보상이 없어도 헌신할 수 있는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한 인간>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관점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돌보는 이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권고와 조언이 환자들은 부당한 폭력으로 인식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하며, 환자들의 공격적인 태도를 낙담과 고통의 울부짖음으로 새겨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4.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환자에게 <이러한 고통은 하느님의 뜻이거나 섭리이다.>혹은 <하느님의 오묘하신 계획은 알 수 없으나 그 분께 의탁해야만 한다.> <하느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험에 들게

한다.)라는 등의 말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때로는 분노를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질병이 주는 고통의 한계를 뛰어넘고 극복하여 질병의 의미를 찾는 것은 환자들 자신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느린 여정이기 때문에 돌보는 이들은 환자들의 심리적 리듬을 존중해야 합니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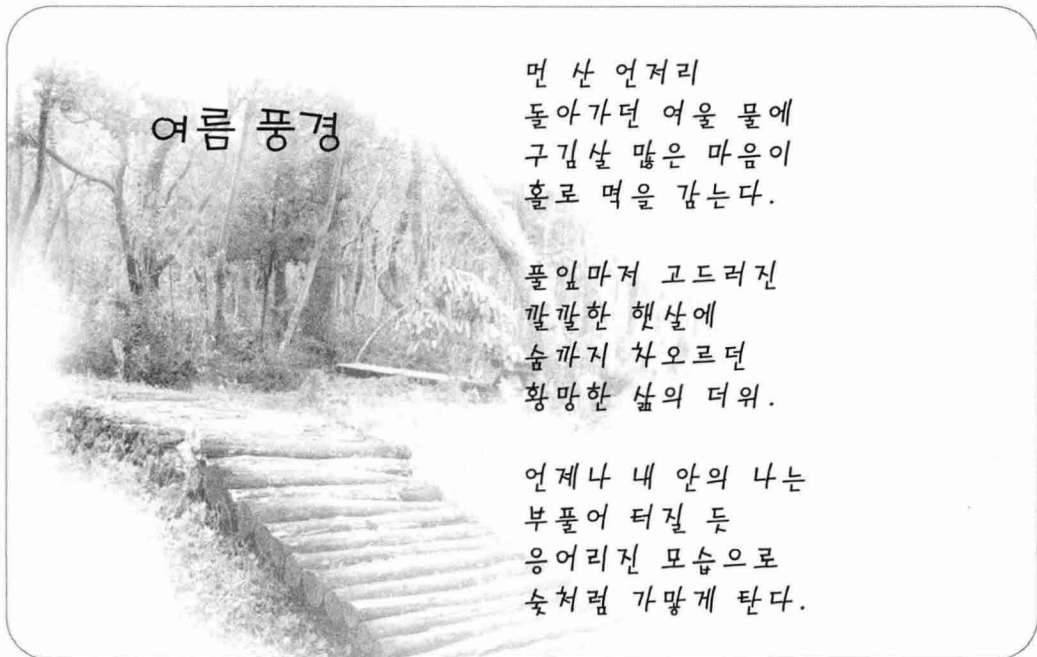
돌보는 이들은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의 내면과 접촉하면서 인간적인 만남을 경험합니다. 인간적인 만남이란 돌보는 이의 전 존재가 환자와 함께 충만하게 있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환자를 만나고 있는 순간에는 자신의 일이나 개인적인 관심거리, 현재 자신에게 진행 중인 계획 등을 생각하는 경향을 극복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환자와 함께 하는 것만이 아니고 전 인격적인 노력으로써 환자를 위하여 존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환자를 일반적인 논리로 끌어오기 위하여 부당한 압력을 주어서는 안 되며, 환자가 성장하도

록 돕지만 환자의 행동노선이 중심이 되도록 합니다. 또한 환자로 하여금 감정을 억제하지 않고 표출하도록 도우며, 감정에 대하여 논의하거나 논리로 공격하지 않고 존중해야 합니다.

6.

환자들은 자신만의 고유한 삶을 자유롭고도 책임감 있게 영위해야 합니다. 돌보는 이는 자신의 존재를 환자의 인간성 보다 우선해서는 안 되며, 환자가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는데 공감하고 협조하며, 환자들이 자신의 자유와 진취성 및 감수성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향한 외로운 길을 가는 말기환자와 그 가족들과 함께 걸으며 진정한 이웃이 되기 위하여 늘 노력하시고 기도하시는 호스피스인 모두에게 하느님의 위로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름 풍경

먼 산 언저리
돌아가던 여울 물에
구김살 많은 마음이
홀로 먹을 갠다.

풀잎마저 고드려진
갈갈한 햇살에
숨까지 차오르던
황망한 삶의 더위.

언제나 내 안의 나는
부풀어 터질 듯
응어리진 모습으로
숙처럼 가뭇게 탄다.